

전남, 사망자 > 출생아 '데드 크로스' 청년 인구 유입 '정책의 틀' 바뀌어야

저출산·고령화로 3년 연속 이어져... 전국 시·도 중 유일

일자리·주거·자녀교육·문화시설 개선 등 근본 대책 시급

전남지역의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데드 크로스'(Dead Cross) 현상이 고착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2면>
전남은 지난 2013년 이후 지난해까지 3년 연속 '데드 크로스' 현상이 빚어진 전국 유일무이한 광역단체로, 이 같은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외지기 업유치와 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지역의 현실에 맞는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남도와 통계청의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전남은 지난해 1만6500명이 사

망하고 1만5100명이 출생해 양자간 격차는 1400명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27만5700명이 사망하고 43만8700명이 출생했다.
이 같이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현상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아직까지 전국적인 추세는 출생아 수가 사망자보다 훨씬 더 많다.
지난해 전국 광역단체 중 '데드 크로스'가 나타난 지역은 전남과 강원지역 2곳 뿐이었는데, 강원지역(사망자 1만1300명·출생아 1만900명)도 전남보다 사망자 대비 출생아 수 비율이 더 낮았다. 또 지난 3년 연속 '데드 크로스' 현상이 나타난 지역은 전

■전남도 인구 동향 <단위:명, 자료:통계청>

	출생	사망	격차
2013	1만5401	1만6332	931
2014	1만4817	1만6053	1236
2015	1만5100	1만6500	1400
전국	43만8700	27만5700	16만3000

■광주시 인구 동향 <단위:명, 자료:통계청>

	출생	사망	격차
2013	1만2729	6891	5838
2014	1만2729	6935	5794
2015	1만2500	7400	5100

국 광역단체 중 전남이 유일무이한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사망자 1만6332

? 데드 크로스

주식시장에서 주가가 약세장으로 전환하는 신호를 말한다. 인구 데드 크로스는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자연감소 현상으로, 출생률이 약세로 전환하는 신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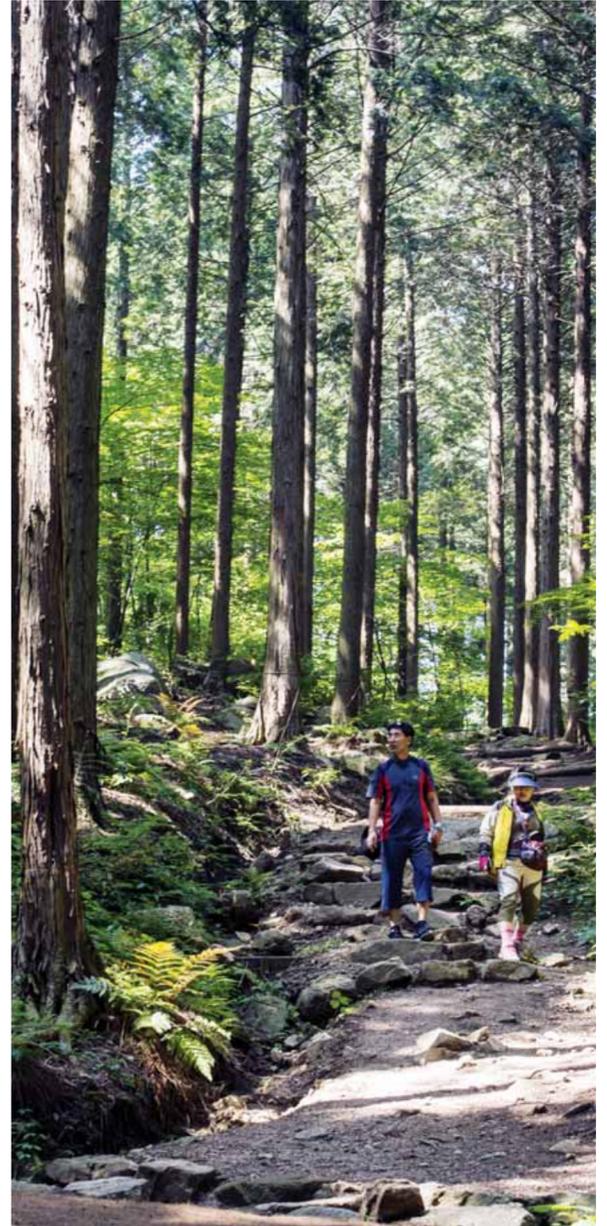
명·출생아 1만5401명(격차 931명) ▲2014년 사망자 1만6053명·출생아 1만4817명(= 1236명) 등이지만 전남의 경우 사망자와 출생아 수 격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다.

이는 전남이 다른 광역단체에 비해 초고령화·저출산 심화지역이라는 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문제는 사망자가 출생아 수를 앞지르는 현상이 계속 이어질 경우 광역단체가 자칫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는 점이다.

광주는 지난 3년간 '데드 크로스' 현상이 단 한 번도 없었지만 추이를 보면 출생아 수는 갈수록 줄어든 반면 사망자 수는 늘고 있다. 연도별로는 ▲2013년 출생아 1만2729명(사망자 6891명) ▲2014년 출생아 1만2729명(= 6935명) ▲지난해 출생아 1만2500명(= 7400명) 등이다. 광주 역시 조만간 '데드 크로스' 현상이 빚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 같은 현상을 막기 위해선 주민등록상 인구늘리기 등 과거 정책에서 벗어나 보다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주거환경·자녀 양육 및 교육여건, 문화와 여가시설 개선 등 만 20~39세 가임 여성 인구유입을 위한 정부·지자체의 정책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축령산에서 '더위탈출' 광주·전남지역 낮 최고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등 무더위가 계속된 30일, 등산객들이 장성 축령산 삼나무 그늘에서 더위를 식히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고민 있으세요? 나미야잡화점에 편지 보내보세요”

광주 유스퀘어 등 3곳에 설치

‘외롭고 이 힘든 마라톤에서 ‘나미야잡화점’을 통해 한 톨포 쉬어갑니다.’

어느 순간, 세상에서 한 없이 작은 존재가 되어버린듯했던 취업준비생 A씨에게 단비같은 편지가 도착했다. 손글씨로 정성스레 쓴 편지를 보낸 이는 ‘나미야할아버지’다. <관련 기사 16면>

답장의 내용은 그에게 정확한 ‘해답’을 준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가 자신의 고민을 들어주고, “오늘 하루 어땠냐” 물어주는 것 같아 큰 위로를 받았다.

당신의 고민이 담긴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우체통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유스퀘어문화관에 자리한 빨간 우체통, ‘나미야잡화점’이 소박한 그 꿈을 이뤄준다.

‘청년문화허브’가 운영하는 ‘나미야잡화점’ 아이디어는 국내에서 50만부 이상 팔린 히가시노 게이코의 소설 ‘나미야잡화점’의 기획에서 따왔다. 현재 ‘나미야잡화점’은 유스퀘어문화관, 전남대 도서관, 광주 대의동 학원가 3곳에 설치돼 있다.

누군가에게 작은 격려를 받고 싶다면, ‘나미야잡화점’의 문을 두드려 보시길.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국학호남진흥원 설립 가시화

광주·전남이 공동으로 건립해 운영하는 국학호남진흥원 설립이 가시화되고 있다. 시·도는 행정자치부와 최근 협의를 마치고 다음달께 국학호남진흥원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30일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시와 함께 오는 2017년 초 국학호남진흥원 법인을 설립한 후 2020년 말 국비 68억원, 광주시와 전

남도 각각 109억원 등 286억원을 투입해 진흥원을 건립한다.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1년 정도 건립 시기가 늦춰질 수도 있다.
지방 출자·출연기관에 해당하는 국학호남진흥원은 광주·전남지역 내 국학 관련 문집·고문서 등 자료수집, 번역, 교육 등을 맡게 된다.
행자부는 최근 협의에서 전남도에 설립

국비 등 286억원...2020년 건립
광주시·전남도 공동 운영
문집·고문서 등 수집 번역 교육

필요성과 형태·설립 예정일, 운영방안, 출자·출연 계획, 사업범위와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복지 증진, 지방재정 확충, 예산 절감 등 핵심 기대 효과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또 기존 출자·출연기관과의 기능 중복 여부, 설립·운영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등도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전남도는 광주시와 함께 올해 추정예산에 용역 발주 예산 2500만원을 각각 반영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번 용역에 각각 복수의 국학호남진흥원 부지를 추천해 장단점을 분석해줄 것을 과업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공동 건립·운영 시설 인만큼 사전 협의를 충실히 해 상생의 디딤돌로 삼겠다”며 “국학호남진흥원이라는 건립 취지에 맞게 호남의 부흥을 위한 기반시설로 자리매김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여소야대’ 20대 국회 첫 날 ▶3면
‘비리 복마전’ 재개발주택조합 ▶6면
김현수 설움 날린 흥련 ‘광’ ▶20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 605-1114 대학원 (062) 605-1115

2016 내가슴愛약속

내 가슴의 건강을 지키는 아리따운 실천

광주 상무시민공원 6월 12일(일)

종 목 10km / 5km
참가비 1만원, 전액 한국유방건강재단에 기부됩니다.
기념품 르까프 기능성 티셔츠, 양말
참가문의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사무국 1688 9744
참가신청 선착순 접수 <http://me2.do/xRtD1LuJ>
검색창에 **핑크리본 사랑마라톤** 을 입력하세요.

후원 보건복지부, 한국유방암학회 협찬 헤라, 아리따움, 르까프

AMORE PACIFIC 한국유방건강재단 Korea Breast Cancer Foundation